

부모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가 학령기 아동의 자기 효능감과 일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하 미 정 · 장 영 애*
인천대학교 대학원 · 소비자아동학과*

The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on Self-efficacy and Daily Stress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Ha, Mi Jung · Jang, Young Ae*
Graduate School, Univ. of Incheon, Incheon, Korea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Child Development, Univ. of Incheon, Incheo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elf-efficacy and daily stress. The subjects were 355 children selected from 4 elementary schools and their mothers. Data was collected using the parenting efficacy index, parenting stress index, children's self-efficacy inventory and children's daily stress inventory. Data was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the t-test, one way ANOVA(Duncan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child's grade, gender, scholastic achievement, mother education, father education, and income. There we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daily stress according to the child's grade, gender, and scholastic achievement.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maternal parenting efficacy and children's self-efficacy, especially self-confiden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nd indicat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children's daily stress.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self-efficacy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and indicat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hildren's daily stress. It was also found that scholastic achievement, educational distress of the mother, father educat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children's self-efficacy, and healthy parenting ability, father education, stress of a difficult child, scholastic achievement, gender were all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children's daily stress.

Key words: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children's self-efficacy, children's daily stress

I. 서 론

많은 연구들이 부모 관련 변인 중 아동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끊임없이 탐색하고 있는데, 최근 부모 양육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부모들이 자신의 양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양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가와 같은 양육의 인지적 요인을 기술하고 설명하는데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양육의 인지적 요인은 양육과 관계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신장시키고 양육에 대한 바른 평가와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부모 자신의 자아형성과 양육행동 뿐 아니라,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최형성 2002).

부모의 인지적 특성 가운데 하나인 양육효능감은 자신이 부모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로 정의 되는데(신숙재 1997; Johnston & Mash 1989), 양육 행동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부모의 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전은영 2004).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대해 최형성과 정옥분(2000)은 전반적인 양육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능력, 훈육능력 등이 그 구성요인으로 포함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전반적인 양육능력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양육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능력과 지식을 의미하고,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은 자녀의 심신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이나 지식을 의미한다. 의사소통능력은 자녀의 이해 및 수용,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말하며, 학습지도능력은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는 능력, 훈육능력은 자녀를 통제하고 훈육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아동에게 수용적이고 비체벌적인 양육행동을 하고, 아동을 잘 이해하고 부모-아동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원활하게 이끄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반면,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통제적이고 강압적이며 체벌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아동을 확대하고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다고 한다(Coleman & Karraker 1997; Johnston & Mash 1989). 이처럼 양육효능감

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이해하고 이것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녀양육은 부모의 대표적인 역할로서 부모에게 심리적인 만족감, 기쁨 등을 느끼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심리적,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피로감을 주고 부모의 개인생활과 여가활동 기회를 제약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또한 부부관계가 자녀의 요구를 우선시 하는 자녀중심의 부부관계로 변화되기도 하여, 부부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불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전춘애·박성연 1998; Belsky 1984).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 중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다루기 어려운 행동,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또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부모의 역할 수행 중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양육스트레스라 한다. 신숙재(1997)는 부모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를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구분 하였다. 여기서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다루기 어려운 행동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며,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자녀와의 사이가 가깝지 않다고 지각하는 등 자녀와의 일상적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학습 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자녀가 부모의 기대보다 공부를 못하고 스스로 자기 일을 하지 않아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현대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증가하고, 부모 역할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져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박해미 1994; 한세영 1996). Crnic과 Greenberg(1990)는 부모역할 수행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주요 생활사건 경험보다 더 중요한 스트레스의 근원으로서, 아동문제와 부모의 정신건강, 그리고 가족기능을 더

을 잘 예언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양육스트레스가 부모와 아동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Abidin 1990; Crnic & Greenberg 1990). Belsky (1984)는 스트레스의 상황적 요소가 양육의 주요 결정 요소이며, 직접-간접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아동양육에 있어 어머니가 느끼는 무력감과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며 아동에 대한 학대와 우울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 라는 것은 예측을 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여러 발달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아동의 자기효능감이다. 오늘날과 같은 성취지향적인 사회 속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자신감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자기효능감이라 하는데, 이는 아동의 바람직한 학업성취, 원만한 대인관계 및 일상생활의 여러 대처능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아동은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발달시키고 일상적인 생활스트레스에도 잘 견디어, 학교 및 사회생활에 잘 적응한다. 또한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고 또래간의 인기도 높아 바람직한 사회성 발달을 보이며,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잘 대처하게 된다(차인수 2001). 반면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아동은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어 수동적이며,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걱정과 불안이 앞서 주어진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진은영 2001; Bandura 1997). 또한 문제해결에 있어 폭넓은 시각을 갖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며, 환경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정서적 흥분이 높고 무력감에 쉽게 빠지며 문제나 상황을 더 어렵게 인식한다(장미선 2002; Mash & Jonston 1983). 이처럼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인지적, 사회 정서적 발달 및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지고 있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에 관한 연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중 부모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보상을 주는 중요한 존재이다. 황혜자와 최윤화(2003)는 자기효능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정환경이며, 이 중에서도 아동을 키우는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하였고, 몇몇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효능감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이동영 1997; 진은영 2001; 강민정 2004). 또한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의해 학습될 수 있음을 나타낸 연구도 있다. 즉, 어머니는 아동의 일차적 모델로 작용하여, 아동은 어머니의 행동 및 태도를 내재화 하고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을 모방,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통하여 아동기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도 한다(우희정 1993). 또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우희정(1994)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관계되는 변인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은숙(1994)과 박현정(200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모역할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선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아니지만 유사한 개념인 자아존중감이나 자아개념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있다. 최정미와 우희정(2004)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현주(1998)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자아개념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본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과거에는 스트레스가 성인들만의 문제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즘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동들도 성인들 못지않게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변화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Chandler 1993), 아동이 받는 스트레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성인에 비해 아동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 행동 및 발달 장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홍강의 1998). 또한 현대의 급속한 사회적 변화는 아동에게 많은 기대와 요구를 하게 되어, 아동들은 미처 준비를 하기도 전에 여러 방면에서 높은 성취를 해야 하므로, 과거에 비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Elkind 1984).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가정이나 부모관련 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성윤(1991)은 가정 환경과 아동의 정신건강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여, 아동들은 가정환경 변인에 의해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아동의 스트레스 지각은 환경적 요인 중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미영(1999)은 아동이 부모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보다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선택한다고 하였고, 서영미(2001)는 가족지지가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가족의 사랑, 이해, 관심, 존중의 다양한 지지는 아동들에게 긍정적 생활태도를 갖게 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북돋아주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게 한다고 하였다.

부모의 효능감은 부모가 아동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아동의 스트레스에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Mash와 Johnston(1983)은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 중 하나인 공격적인 행동은 어머니들의 자아 이미지가 부정적이며, 부모 효능감이 낮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혜인(2002)은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 집단의 유아

보다 낮은 집단의 유아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이현정(199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가 일상적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관계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도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관계됨을 알 수 있다. 이춘인(2001)은 부모의 스트레스와 자녀의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녀는 부모의 스트레스를 통해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고, 홍희란(2002)의 연구 결과에서 보면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와의 관계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미흡한 지식과 경험으로 자녀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갈등 관계로 이해될 수 있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아버지보다 더 높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정(1997)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스트레스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양혜영(1998)은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가 많은 스트레스 행동을 보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일상 스트레스에 관계되는 변인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한편,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일상스트레스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이들 변인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자기효능감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Newman(1983)은 초등학교 6학년은 그 전후 학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하였고, 주이분(1982)은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정용(198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박순덕(2005)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고 하였다. 오순환(1991)과 윤현선(2005)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아동의 자아개념,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차이를 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규순(2000)은 5학년과 6학년의 스트레스 수준

을 조사한 결과, 학년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하였고, 이면수(200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스트레스 경험이 높다고 하였다. 장영애(2008)는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보고하였고, 고영미(1996)는 대졸 어머니의 유아가 고졸 어머니의 유아보다 다소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나타냈다고 한다. 한미현(1993)은 아버지학력이 대졸이상이고, 사무 관리직 이상의 상위직종에 종사하면 아동의 위축행동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고, 엄현경(1998)은 가정의 수입이 낮은 가정의 유아가 가정의 수입이 높은 가정의 유아보다 스트레스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일상스트레스에 관계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일상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고,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일상스트레스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자기효능감, 일상스트레스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각각이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있으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을 동시에 분석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이 두 변인의 영향력을 동시에 분석해보는 일은 부모의 양육에 관련되는 변인을 이해하는데 의의 있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부모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규명하여, 아동발달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일상스트레스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 일상스트레스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 일상스트레스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넷째,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도, 인천지역에 위치한 4개 초등학교를 단순임의 표본추출방법에 의해 표집 하여, 각 학교의 4, 5, 6학년 학생 355명과 그들의 어머니 3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 Variables | N | % | |
|------------------------|-------------|-----|------|
| Grade | 4th | 113 | 31.8 |
| | 5th | 126 | 35.5 |
| | 6th | 116 | 32.7 |
| Gender | male | 156 | 43.9 |
| | female | 199 | 56.1 |
| Scholastic achievement | high | 31 | 10.4 |
| | middle | 177 | 59.6 |
| | low | 89 | 30.0 |
| Mother education | high school | 204 | 59.3 |
| | college | 61 | 17.7 |
| | university | 79 | 23.0 |
| Father education | high school | 147 | 43.2 |
| | college | 61 | 17.9 |
| | university | 132 | 38.8 |
| Income (10,000won) | under 200 | 41 | 12.2 |
| | 200-400 | 180 | 53.4 |
| | over 400 | 116 | 34.4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부모의 양육효능감 척도, 양육스트레스 척도, 아동의 자기효능감 척도,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척도,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이다.

1) 부모의 양육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형성과 정옥분(2000)의 부모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7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요인으로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양육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능력이나 지식을 측정하는 ‘전반적인 양육능력’ 11문항, 자녀의 심신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이나 지식을 측정하는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7문항, 자녀의 이해 및 수용,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의사소통능력’ 9문항, 자녀의 지적학습을 지도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학습지도능력’ 6문항, 자녀를 통제하고 훈육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훈육능력’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의 점수가 주어졌다. 부모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신뢰도는 하위요인별로 .79~.90으로 나타났으며, 양육효능감 척도의 전체 Cronbach의 α 계수는 .96으로 나타났다.

2) 양육스트레스 척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수정한 신숙재(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으로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다루기 어려운 행동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8문항,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자녀와의 사이가 가깝지 않다고 지각하는 등 자녀와의 일상적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9문항, 자녀

가 부모의 기대보다 공부를 못하고 스스로 자기 일을 하지 않아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의 점수가 주어졌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하위요인별로 .73~.86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스트레스 척도 전체의 Cronbach의 α 계수는 .86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의 자기효능감 척도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차정은(1997)이 만든 척도를 한혜진(2002)이 초등학생에게 알맞게 수정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으로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를 의미하는 ‘자신감’ 8문항, 개인이 어떤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를 의미하는 ‘자기조절 효능감’ 10문항, 개인이 어떤 수행상황에서 목표를 선택하고 설정할 때 높은 수준의 난이도를 선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과제난이도 선호’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아주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아주 그렇다’의 4점의 점수가 주어졌다. 아동의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는 하위요인별로 .73~.85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 척도 전체의 Cronbach의 α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4)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척도

아동의 일상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미현과 유안진(1995)이 제작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요인으로는 부모의 간섭, 편애, 과잉 기대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부모관련 스트레스’ 8문항, 가정의 경제상태, 가정의 분위기, 가족원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 7문항, 친구들과로부터의 따돌림, 친구들과의 부적응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친구관련 스트레스’ 7문항, 성적, 시험에 대한 불안, 과외활동의 과다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학업관련 스트레스’ 7문항, 교사의 편애, 수업방식, 학생들에 대한 태도, 학교시설의 불편함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교사 및 학교관련 스트레스’ 7문항, 통학시간, 교통체증, 소음 및 유해환경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주변 환경 관련 스트레스’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전혀 받지 않는다’의 1점에서 ‘많이 받는다’의 4점의 점수가 주어졌다.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하위요인 별로 .81~.90 으로 나타났고 일상스트레스 척도의 전체 Cronbach의 α 계수는 .95로 나타났다.

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관한 질문지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에는 아동의 학년, 성별, 학업성적, 어머니 학력, 아버지 학력, 월수입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측정도구의 적절성과 문항에 대한 아동과 부모의 이해정도, 소요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서울·인천지역의 초등학교 4, 5, 6학년 30명과 그들의 어머니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몇몇 문항을 수정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4개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각 반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아동과 부모에게 배포하고 교사의 도움을 받아 회수하였다. 총 420부의 질문지를 배부 하였는데, 그 중 미회수된 것, 응답이 불성실하고 부모와 아동의 쌍이 맞지 않는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355부의 질문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ver. 13.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산출을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자기효능감, 일상스트레스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원분산분석 후 차이가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인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을 밝히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결과를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일상스트레스의 차이,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일상스트레스의 관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자기효능감, 일상스트레스의 관계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 분석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일상스트레스 차이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자기효능감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자기효능감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에 의하면 아동의 성별, 학업성적,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 월수입에 따라서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아동의 자기효능감의 하위 변인 중 자신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아(M=23.44)가 여아(M=22.06)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 남아가 여아보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과 신념인 자신감이

Table 2. Difference in children's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

| Variables | | Self-confidence | | | Self-control efficacy | | | Task-difficulty preference | | | Total self-efficacy | | |
|------------------------|-------------|-----------------|-----------|---|-----------------------|-----------|----|----------------------------|-----------|----|---------------------|-----------|----|
| | | M | t/F | D | M | t/F | D | M | t/F | D | M | t/F | D |
| Grade | 4th | 23.20 | | | 28.04 | | | 12.84 | | | 64.08 | | |
| | 5th | 22.55 | 1.139 | | 27.34 | .972 | | 12.42 | .582 | | 62.32 | 1.431 | |
| | 6th | 22.27 | | | 27.02 | | | 12.40 | | | 61.70 | | |
| Gender | male | 23.44 | | | 27.35 | | | 12.48 | | | 63.28 | | |
| | female | 22.06 | 2.745** | | 27.55 | -.331 | | 12.59 | -.298 | | 62.21 | .910 | |
| Scholastic achievement | high | 24.38 | | C | 30.70 | | C | 13.56 | | B | 68.65 | | C |
| | middle | 22.33 | 14.436*** | B | 26.77 | 35.823*** | B | 12.46 | 13.001*** | B | 61.57 | 34.719*** | B |
| | low | 19.41 | | A | 22.19 | | A | 9.90 | | A | 51.51 | | A |
| Mother education | high school | 22.57 | | | 26.72 | | A | 12.36 | | | 61.66 | | A |
| | college | 22.08 | 1.976 | | 27.83 | 4.386* | AB | 12.72 | .773 | | 62.63 | 3.227* | AB |
| | university | 23.58 | | | 28.84 | | B | 12.91 | | | 65.34 | | B |
| Father education | high school | 22.12 | | A | 26.33 | | A | 12.25 | | A | 60.71 | | A |
| | college | 22.13 | 5.087** | A | 26.90 | 9.666*** | A | 12.13 | 3.386* | AB | 61.16 | 9.900*** | A |
| | university | 23.78 | | B | 29.12 | | B | 13.21 | | B | 66.12 | | B |
| Income (10,000won) | under 200 | 22.17 | | | 24.87 | | A | 12.39 | | | 59.43 | | A |
| | 200-400 | 22.47 | 1.899 | | 27.02 | 9.731*** | B | 12.28 | 2.070 | | 61.77 | 6.555** | A |
| | over 400 | 23.44 | | | 29.02 | | C | 13.11 | | | 65.58 | | B |

*p<.05, **p<.01, ***p<.001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효능감 총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신감에서는 학업성적이 상집단(M=24.38), 중집단 (M=22.33), 하집단(M=19.41) 순으로 높은 점수가 나타났고, 자기조절 효능감에서도 학업성적이 상집단(M=30.70), 중집단(M=26.77), 하집단(M=22.19) 순으로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과제난이도선호에서는 학업성적이 상집단(M=13.56)과 중집단(M=12.46)이 하집단(M=9.90)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총점에서는 상집단(M=68.65), 중집단(M=61.57), 하집단(M=51.51) 순으로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즉,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효능감 총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자기조절효능감에서 대졸이상(M=28.84) 어머니의 아동이 고졸이하(M=26.72) 어머니의 아동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

났고, 자기효능감 총점에서도 대졸이상(M=65.34) 어머니의 아동이 고졸이하(M=61.66) 어머니의 아동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 학력이 높은 집단의 아동이 자신이 어떤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인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효능감 총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신감에서는 대졸이상(M=23.78) 아버지의 아동이 전문대졸(M=22.13), 고졸이하(M=22.12) 아버지의 아동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났고, 자기조절 효능감에서도 대졸이상(M=29.12) 아버지의 아동이 전문대졸(M=26.90), 고졸이하(M=26.33) 아버지의 아동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과제난이도 선호에서는 대졸이상(M=13.21) 아버지의 아동이 고졸이하(M=12.25) 아버지의 아동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 총점에서는 대졸이상(M=66.12) 아

머지의 아동이 전문대졸(M=61.16), 고졸이하 (M=60.71) 아버지의 아동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즉, 아버지 학력이 높은 집단이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월수입에 따라서는 자기조절 효능감과 자기효능감 총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기조절 효능감에서는 월수입 400만원 이상 집단(M=29.02), 200만원~400만원 미만 집단(M=27.02), 200만원 미만 집단(M=24.87) 순으로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총점에서는 400만원 이상인 집단(M=65.58)이 200만원~400만원 미만 집단(M=61.77), 200만원 미만 집단(M=59.43)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즉 월수입이 높은 가정의 아동이 자신이 어떤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인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의 학년에 따라서는 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일상 스트레스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에 의하면 아동의 학년, 성별, 학업성적에 따라서 아동의 일상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아동의 학년에 따라서는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중 학업관련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6학년(M=15.95)과 5학년(M=15.30)아동이 4학년(M=13.52) 아동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 학년이 높을수록 성적, 시험에 대한 불안과 과도한 과외활동으로 인한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의 하위 변인 중 부모관련 스트레스,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 친구관련 스트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 아동 일상스트레스 총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관련 스트레스에서는 여아 (M=16.96)가

남아(M=15.66)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났고, 가정 환경 스트레스에서도 여아(M=11.00)가 남아(M=9.67)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친구관련 스트레스에서도 여아(M=11.97)가 남아(M=10.45)보다, 학업관련 스트레스에서도 여아(M=15.84)가 남아(M=13.80)보다, 아동 일상스트레스 총점에서도 여아(M=76.04)가 남아(M=68.50)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모든 영역의 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부모관련 스트레스, 가정 환경관련 스트레스, 친구관련 스트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 교사 및 학교관련 스트레스, 일상스트레스 총점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관련 스트레스에서는 아동의 성적이 하인 집단(M=19.29)이 상집단(M=15.44), 중집단(M=16.42)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났고,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에서도 아동의 성적이 하인 집단(M=12.03)이 상집단 (M=9.23), 중집단(M=10.90)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학업관련 스트레스에서는 성적이 하인 집단(M=17.45)이 상집단(M=13.60), 중집단 (M=15.28)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친구관련 스트레스에서는 하인 집단(M=12.96)이 상집단(M=10.25)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났고, 주변환경관련 스트레스에서도 하인 집단(M=10.51)이 상집단 (M=8.69)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교사 및 학교관련 스트레스에서는 중집단(M=10.84), 하집단 (M=11.32)이 상집단(M=9.38)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아동 일상스트레스 총점에서는 하집단 (M=83.58), 중집단(M=74.67), 상집단(M=66.62) 순으로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즉 아동의 성적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부모관련 스트레스,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 친구관련 스트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 교사 및 학교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머니 학력, 아버지 학력, 월수입에 따라서는 아동의 일상스트레스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3. Difference in daily stress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 Variables | | Parent domain | | | Home environment domain | | | Friends domain | | | School achievement domain | | |
|------------------------|-------------|---------------|---------|---|-------------------------|----------|---|----------------|----------|----|---------------------------|-----------|---|
| | | M | t/F | D | M | t/F | D | M | t/F | D | M | t/F | D |
| Grade | 4th | 16.07 | | | 10.72 | | | 11.61 | | | 13.52 | | A |
| | 5th | 16.67 | .371 | | 10.58 | .934 | | 11.69 | 1.638 | | 15.30 | 6.577** | B |
| | 6th | 16.40 | | | 9.93 | | | 10.58 | | | 15.95 | | B |
| Gender | male | 15.66 | | | 9.67 | | | 10.45 | | | 13.80 | | |
| | female | 16.96 | -2.279* | | 11.00 | -2.664** | | 11.97 | -2.731** | | 15.84 | -3.627*** | |
| Scholastic achievement | high | 15.44 | | A | 9.23 | | A | 10.25 | | A | 13.60 | | A |
| | middle | 16.42 | 6.139** | A | 10.90 | 5.680** | B | 11.74 | 3.726* | AB | 15.28 | 6.727** | A |
| | low | 19.29 | | B | 12.03 | | B | 12.96 | | B | 17.45 | | B |
| Mother education | high school | 16.49 | | | 10.54 | | | 11.32 | | | 14.95 | | |
| | college | 17.26 | 2.343 | | 11.01 | 1.309 | | 12.34 | 1.726 | | 15.26 | .244 | |
| | university | 15.35 | | | 9.77 | | | 10.67 | | | 14.63 | | |
| Father education | high school | 17.00 | | | 10.99 | | | 11.76 | | | 15.25 | | |
| | college | 16.37 | 2.627 | | 10.29 | 2.042 | | 11.52 | 1.399 | | 15.50 | 1.760 | |
| | university | 15.53 | | | 9.86 | | | 10.72 | | | 14.23 | | |
| Income (10,000won) | under 200 | 16.73 | | | 11.85 | | | 11.75 | | | 14.17 | | |
| | 200-400 | 16.71 | 2.587 | | 10.45 | 2.778 | | 11.51 | .743 | | 15.07 | .480 | |
| | over 400 | 15.34 | | | 9.86 | | | 10.83 | | | 14.91 | | |

| Variables | | Teacher and school domain | | | Surroundings domain | | | Total stress | | | | |
|------------------------|-------------|---------------------------|--------|---|---------------------|--------|----|--------------|----------|---|--|---|
| | | M | t/F | D | M | t/F | D | M | t/F | D | | |
| Grade | 4th | 10.61 | | | 9.82 | 2.413 | | 72.37 | | | | |
| | 5th | 10.69 | 1.051 | | 9.16 | | | 74.12 | .404 | | | |
| | 6th | 9.99 | | | 8.68 | | | 71.56 | | | | |
| Gender | male | 10.05 | | | 8.85 | | | 68.50 | | | | |
| | female | 10.74 | -1.589 | | 9.50 | -1.560 | | 76.04 | -3.147** | | | |
| Scholastic achievement | high | 9.38 | | A | 8.69 | | A | 66.62 | | | | A |
| | middle | 10.84 | 4.723* | B | 9.46 | 2.679 | AB | 74.67 | 7.589** | | | B |
| | low | 11.32 | | B | 10.51 | | B | 83.58 | | | | C |
| Mother education | high school | 10.44 | | | 9.25 | | | 73.01 | | | | |
| | college | 11.09 | .987 | | 9.59 | .541 | | 76.57 | 1.704 | | | |
| | university | 10.13 | | | 8.89 | | | 69.46 | | | | |
| Father education | high school | 10.67 | | | 9.30 | | | 74.99 | | | | |
| | college | 10.13 | .389 | | 9.31 | .122 | | 73.14 | 1.779 | | | |
| | university | 10.42 | | | 9.09 | | | 69.87 | | | | |
| Income (10,000won) | under 200 | 10.46 | | | 9.63 | | | 74.60 | | | | |
| | 200-400 | 10.47 | .001 | | 9.32 | .776 | | 73.55 | .920 | | | |
| | over 400 | 10.48 | | | 8.86 | | | 70.30 | | | | |

*p<.05, **p<.01, ***p<.001

2.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학령기 아동의 자기 효능감, 일상스트레스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 일상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4, Table 5와 같다.

Table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 효능감과만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아동의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 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인 중에서 학습지도능력($r=.207$), 전반적인 양육능력($r=.176$), 의사소통능력($r=.138$), 훈육능력($r=.138$),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r=.104$) 순으로 높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maternal parenting efficacy and children's self-efficacy

| Variables | Self-confidence | Self-control efficacy | Task-difficulty preference | Total self-efficacy |
|---------------------------|-----------------|-----------------------|----------------------------|---------------------|
| General parenting ability | .068 | .176** | .063 | .139** |
| Healthy parenting ability | .047 | .104* | .074 | .096 |
| Communication ability | .076 | .138** | .016 | .108* |
| Coaching ability of study | .095 | .207*** | .086 | .173** |
| Discipline ability | .091 | .138** | .089 | .137*** |
| Total parenting efficacy | .083 | .175** | .070 | .147** |

* $p<.05$, ** $p<.01$, *** $p<.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총점과 아동의 자기조절 효능감 총점은 $r=.175$ 의 정적상관을 나타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자기효능감 총점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총점 및 하위변인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 양육효능감 총점과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총점은 $r=-.116$ 로 5%의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중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인 중에서 의사소통능력($r=-.120$), 전반적인 양육능력($r=-.105$) 순으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는 전반적인 양육능력($r=-.159$), 의사소통능력($r=.154$), 훈육능력($r=-.132$), 학습지도능력($r=-.112$) 순으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및 학교 관련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인 중에서 전반적인 양육능력($r=-.130$), 의사소통능력($r=-.126$), 훈육능력($r=-.126$), 학습지도능력($r=-.111$) 순으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변환경관련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인 중에서 의사소통능력($r=-.113$), 훈육능력($r=-.109$), 전반적인 양육능력($r=-.107$), 학습지도능력($r=-.106$) 순으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총점은 어머니 양육효능감 하위변인 중에서 전반적인 양육능력($r=-.124$), 의사소통능력($r=-.116$), 학습지도능력($r=-.116$), 훈육능력($r=-.104$)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maternal parenting-efficacy and children's daily stress

| Variables | Parent domain | Home environment domain | Friends domain | School achievement domain | Teacher and school domain | Surroundings domain | Total stress |
|---------------------------|---------------|-------------------------|----------------|---------------------------|---------------------------|---------------------|--------------|
| General parenting ability | -.105* | -.159** | -.078 | -.029 | -.130* | -.107* | -.124* |
| Healthy parenting ability | -.067 | -.055 | -.017 | .015 | -.050 | -.018 | -.040 |
| Communication ability | -.120* | -.154** | -.015 | -.041 | -.126* | -.113* | -.116* |
| Coaching ability of study | -.094 | -.112* | -.093 | -.045 | -.111* | -.106* | -.116* |
| Discipline ability | -.075 | -.132* | -.068 | -.007 | -.126* | -.109* | -.104* |
| Total parenting efficacy | -.109* | -.143** | -.061 | -.027 | -.124* | -.104 | -.116* |

* $p<.05$, ** $p<.01$

순으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자녀를 이해 및 수용하고, 자녀와 의사소통을 하고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고, 자녀를 통제하고 훈육하는 능력이 있을 때 아동의 일상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중 친구관련 스트레스와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3.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 일상스트레스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 일상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6, Table 7과 같다.

Table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총점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총점은 $r=-.264$ 의 부적상관을 나타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인 중에서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r=-.248$),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

스($r=-.180$) 순으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기조절 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인 중에서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r=-.357$),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r=-.191$),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r=-.175$) 순으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과제난이도 선호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인 중에서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r=-.158$)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기효능감 총점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위변인 중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r=-.369$),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r=-.196$),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r=-.157$) 순으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총점과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총점은 $r=.225$ 의 정적상관을 나타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스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중 부모관련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인 중에서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r=.254$), 학업기대와 관련된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maternal parenting-stress and children's self-efficacy

| Variables | Self-confidence | Self-control efficacy | Task-difficulty preference | Total self-efficacy |
|--|-----------------|-----------------------|----------------------------|---------------------|
| Stress of difficult child | -.180** | -.175** | -.093 | -.196*** |
| Stress of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 -.073 | -.191*** | -.089 | -.157** |
| Educational distress | -.248*** | -.357*** | -.256*** | -.369*** |
| Total parenting stress | -.184** | -.265*** | -.158** | -.264*** |

p<.01, *p<.001

Table 7.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maternal parenting-stress and children's daily stress

| Variables | Parent domain | Home environment domain | Friends domain | School achievement domain | Teacher and school domain | Surroundings domain | Total stress |
|--|---------------|-------------------------|----------------|---------------------------|---------------------------|---------------------|--------------|
| Stress of difficult child | .237*** | .177** | .159** | .170** | .196*** | .133* | .228*** |
| Stress of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 .254*** | .155** | .033 | .049 | .100 | .060 | .140** |
| Educational distress | .246*** | .129* | .091 | .181** | .104 | .044 | .175** |
| Total parenting stress | .288*** | .195*** | .121* | .155** | .178** | .112* | .225*** |

*p<.05, **p<.01, ***p<.001

스트레스 ($r=.246$),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r=.237$) 순으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는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r=.177$),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r=.155$),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r=.129$) 순으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련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인 중에서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r=.159$)와만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r=.181$),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r=.170$) 순으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및 학교관련 스트레스와 주변환경 관련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인 중에서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r=.196$), ($r=.133$)와만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총점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위변인 중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r=.228$),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r=.175$),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r=.140$) 순으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각각의 하위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Table 8, Table 9와 같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투입된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r 이 .70 이상을 넘는 변인이 없어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학업성적($\beta=.310$)이었고, 그 다음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beta=-.268$), 아버지의 학력($\beta=.164$) 순으로

Table 8. The effect of the related variables to the children's self-efficacy

| Variables | Children's self-efficacy | | | |
|-----------------------------|--|----------|-------|-----------|
| | B | β | t | |
| Socio-demographic variables | grade | -.545 | -.040 | -.755 |
| | gender | .142 | .006 | .114 |
| | scholastic achievement | 5.885 | .310 | 5.493*** |
| | mother education | .059 | .004 | .065 |
| | father education | 2.039 | .164 | 2.383* |
| | income | 1.612 | .090 | 1.563 |
| Maternal parenting efficacy | general parenting ability | .041 | .022 | .210 |
| | healthy parenting ability | -.001 | .000 | -.003 |
| | communication ability | -.323 | -.138 | -1.401 |
| | coaching ability of study | -.105 | -.040 | -.444 |
| Maternal parenting stress | discipline ability | .658 | .136 | 1.623 |
| | stress of difficult child | -.224 | -.099 | -1.507 |
| | stress of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 .056 | .022 | .291 |
| | educational distress | -1.139 | -.268 | -3.944*** |
| R ² | | .321 | | |
| F | | 8.729*** | | |

* $p<.05$, *** $p<.001$

Table 9. The effects of the related variables to the children's daily stress

| Variables | Children's daily stress | | | |
|-----------------------------|--|----------|-------|---------|
| | B | β | t | |
| Socio-demographic variables | grade | -.439 | -.016 | -.269 |
| | gender | 6.193 | .134 | 2.197* |
| | scholastic achievement | -6.073 | -.157 | -2.506* |
| | mother education | 1.130 | .041 | .542 |
| | father education | -4.400 | -.173 | -2.274* |
| | income | .256 | .007 | .110 |
| | general parenting ability | -.289 | -.075 | -.643 |
| Material parenting efficacy | healthy parenting ability | -1.232 | -.217 | -2.219* |
| | communication ability | -.536 | -.112 | -1.029 |
| | coaching ability of study | -.209 | -.038 | -.389 |
| | discipline ability | -.706 | -.071 | -.770 |
| Material parenting-stress | stress of difficult child | .768 | .166 | 2.284* |
| | stress of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 -.067 | -.013 | -.154 |
| | educational distress | .097 | .011 | .149 |
| R ² | | .169 | | |
| F | | 3.774*** | | |

*p<.05, ***p<.001

나타났다. 즉 아동의 학업성적은 가장 큰 정적 영향을 미쳐, 아동이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고,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부적 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32% 정도로 나타났다.

Table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중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beta = -.217$)이었고, 그 다음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아버지학력($\beta = -.17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beta = .166$), 학업성적($\beta = -.157$), 성별($\beta = .134$) 순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은 가장 큰 부적 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스가 낮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

레스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고, 아동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일상스트레스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17% 정도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일상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일상스트레스의 차이, 부모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와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 일상스트레스 간의 관계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이들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부모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규명하여 아동발달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얻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수행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4개의 초등학교 4, 5, 6 학년 아동 355명과 그들의 어머니 355명을 연구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효능감,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자기효능감, 아동의 일상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t검증, ANOVA, Duncan검증을 실시하였고,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아동의 자기 효능감과 일상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먼저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성별, 학업성적,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월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자신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남아가 여아보다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영현(1981), 신관호(1996), 김영숙(2002) 등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일반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이나 신념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 효능감 총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동의 성적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 중 조승우와 김아영(1998)의 연구와 장기묘(2003)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가 높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자기조절 효능감, 자기효능감 총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력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는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높고 매사에 자신 있게 행동한다는 윤현선(2005)의 연구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된 손화희(1990), 안경영(1992), 이진용(199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아

버지의 학력에 따라서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자기효능감 총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본 연구는 거의 없었지만, 본 연구는 박순덕(2005)의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어머니,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은 고학력의 아버지, 어머니 일수록 자녀의 인지적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녀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의 일상스트레스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알아본 결과, 학년, 성별, 학업성적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학년에 따라서는 학업관련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중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면수(2003)의 초등학생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는 결과와 이규순(2000)의 5학년과 6학년의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학년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업 양과 공부양이 많아지고, 중학교 입학에 대한 부담감과 준비 등으로 스트레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성별에 따라서는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 친구관련 스트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 일상스트레스 총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여아가 남아보다 가정환경 스트레스, 친구관련 스트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면수(2003), 윤혜정(1993), 김광운(2002)의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로, 이는 사회에서 남아와 여아에 대한 기대가 다르고, 또한 여아가 성장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제약이 남아보다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부모관련 스트레스,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 친구관련 스트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 교사 및 학교관련 스트레스, 일상

스트레스 총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성적이 낮을수록 아동의 일상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부모, 학교, 사회가 학업성적을 지나치게 중시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 일상스트레스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 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인 중 학습지도능력, 전반적인 양육능력, 의사소통능력, 훈육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과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총점과 아동의 자기조절 효능감 총점도 정적상관을 나타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으면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희정(1993)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이은숙(1994)의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깊이 관계되어 있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이는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가 자녀 양육시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고, 자신감을 갖고, 자녀를 수용하고 이해해 줄때, 아동도 자신의 확신과 신념이 확고해지고 자신감도 높아지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도 발달되어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의 일상스트레스는 어머니 양육효능감 하위변인 중에서 전반적인 양육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능력, 훈육능력과 부적상관을 나타냈고,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하위변인 중에서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 교사 및 학교관련 스트레스, 부모관련 스트레스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일상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현정(1997), 정혜인(2002)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가 일상적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는 결과와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사랑과 관심으로 자녀와 의사소통과 학습지도를 하고 적절한 통제와 훈육을 하는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의 아동은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 일상스트레스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위변인 중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순으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자기효능감 하위변인 중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순으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총점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총점에서 부적상관이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일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최정미와 우희정(200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아동의 일상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위변인 중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순으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하위변인 중 부모관련 스트레스,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 교사 및 학교관련 스트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 친구관련 스트레스, 주변환경관련 스트레스 순으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총점과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총점에서 정적상관이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스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현정(1997)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가 상호 연관이 있다는 결과와 어머니의 자녀양육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가 많은 스트레스 행동을 보인다는 양혜영(199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넷째,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먼저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업성적,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아버지의 학력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설명력은 32% 정도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학업성적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사회에서 성적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결과라 생각된다. 즉, 성적이 좋지 않은 아동들은 의기소침해져서 의지, 노력, 자신감이 결여되고 이는 결국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지나친 학습기대를 가지고 있고 지나친 성적을 요구할 때,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죄책감과 열등감으로 낮은 자기효능감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 것은 박순덕(2005)의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은 고학력의 아버지 일수록 자녀의 인지적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녀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중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아버지 학력, 어머니의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학업성적, 성별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설명력은 17% 정도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자녀의 일상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일상스트레스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일상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또한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업성적,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아버지의 학력 등이며,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아버지 학력,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학업성적, 성별 등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이 서울, 경기, 인천지역 일부의 4, 5, 6학년 아동으로 제한되어 있고, 연구대상 선정에서 성별이나 학년 등에 따른 사례수에 차이가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학령기 아동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의 자기효능감,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부모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써,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 특히,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머니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기초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즉,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연구대상의 폭을 넓혀 연령에 따른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를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아버지의 양육에 관한 연구들도 이루어져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일상스트레스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부모교육 등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민정(2004) 장애아 형제를 위한 집단 놀이치료가 심리사회적 적응과 가족응집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 재활과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영미(1996)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가족변인과 성별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운(2002) 스트레스 요인과 우울정도와의 관계

- 분석.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1999)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일상스트레스 및 대처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덕(2005) 아버지에 대한 역할기대 및 역할수행간 차이와 청소년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해미(1994) 자녀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정(2005)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행동 및 아동의 성취동기가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547-559.
- 서영미(2001)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및 대처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화희(1990)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학령기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관호(1996) 아동의 신체존중감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적 차이.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영현(1981)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훈육방법과 자아개념과의 상관연구. 아파트 지역의 핵가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경영(1992) 어머니의 언어상호작용 유형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혜영(1998)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유아의 스트레스. 제 6회 학술대회-유능한 어린이로 키우기. 삼성복지재단 119-144.
- 염현경(1998)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순환(199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희정(1993)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모형 탐색.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희정(1994) 아동의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60-67.
- 윤현선(2005)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정(1993) 청소년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 지지 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순(2000) 초등학교생의 스트레스가 학습동기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영(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면수(2003) 초등학교생의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숙(1994) 아동과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아동우월성의 관계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용(1990)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기존중감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인(2001) 초등학교생과 중학생 및 부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1997)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199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기표(2003) 초등학교생과 자기효능감 및 학습양식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춘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선(2002) 청소년기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과 가족변인.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애(2008)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 영향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1), 87-99.
- 조승우·김아영(1998) 초등학교 아동의 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학습전략 사용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27, 71-88.
- 전은영(2004)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차이.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춘애·박성연(1998) 어머니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인들. 한국가정학회지 16(1), 1-11.
- 정용(1984)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인(2002)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이분(1982) 유아의 자아개념과 가정환경변인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은영(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정서경험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인수(2001)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분석.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정은(1997)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최성윤(1991) 아동기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미·우희정(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

- 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지 13(3), 361-369.
- 최형성(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형성·정옥분(2000)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5.
- 한미현(1993)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미현·유안진(1995)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 가정학회지 104, 49-64.
-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혜진(2002) 자기주장훈련이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강의(1998) 어린이의 스트레스와 부적응 행동 및 대처방안. 제 6회 학술대회-유능한 어린이로 키우기. 삼성복지재단, 147-174.
- 홍희란(2002)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자·최윤화(2003)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논집 22(1), 285-304.
- Abidin RR(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 Pediatric PSYC.
- Bandura A(1982)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37, 122-147.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H. Freeman and Company. 12-36.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Coleman PK, Korraiker KH(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f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handler LA(1993) Stress response scale: A measure of behavioral maladjustment in children.
- Cmic KA, Greenberg MT(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Elkind D(1984) All grown up and no place to go. NJ: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3-34.
- Johnston C, Mash EJ(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 Mash EJ, Johnston C(1983) Parental perception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d hyperactive and norma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86-99.
- Newman(1983) Study guide to accompany development through life. Homewood: Dorsey Press. 21-46.